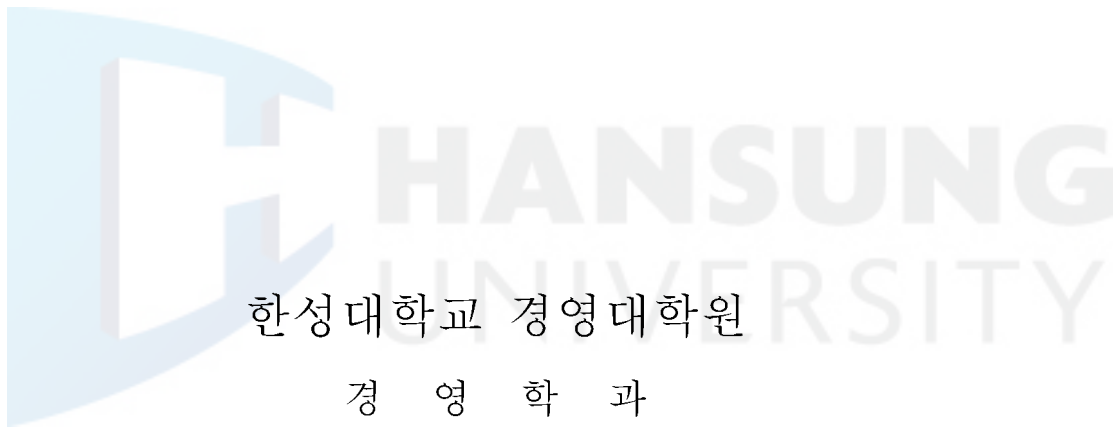


석 사 학 위 논 문

작전적 군수 측면에서 임진왜란 승리 분석

-이순신의 군수적 조치와 주요 해전을 중심으로-

2011년



한성대학교 경영대학원

경 영 학 과

국 방 경 영 전 공

김 태 연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선호

작전적 군수 측면에서 임진왜란 승리 분석

-이순신의 군수적 조치와 주요 해전을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Victory of Imjin War from Operational
Logistics Point of view

-Focused on Sea Battles and Logistic Measures of General
Yi Sun Sin-

2011년 06월 일

한성대학교 경영대학원

경 영 학 과

국 방 경 영 전 공

김 태 연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선호

작전적 군수 측면에서 임진왜란 승리 분석

-이순신의 군수적 조치와 주요 해전을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Victory of Imjin War from Operational
Logistics Point of view

-Focused on Sea Battles and Logistic Measures of General
Yi Sun Sin-

위 논문을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06월 일

한성대학교 경영대학원

경 영 학 과

국 방 경 영 전 공

김 태 연

김태연의 경영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1년 0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작전적 군수 측면에서 임진왜란 승리 분석

- 이순신의 군수적 조치와 주요 해전을 중심으로 -

한성대학교 경영대학원

경 영 학 과

국방경영전공

김 대 연

이순신은 우리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위인이며 군인이다. 필자 본인이군인인바, 군인의 관점으로 볼 때 이순신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나라를 구한 군인이라는 평가에 대하여 당연히 동의할 뿐만 아니라 이에 추가하여, 좀 더 군사적으로 전문적인 평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본고를 작성하게 된 동기이다. 그 군사적으로 전문적인 평가라는 것은 ‘작전적 수준’, ‘작전적 군수’라는 개념의 틀을 가지고 이순신에 대한, 이순신 해전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와 의미를 더하고자 함이다.

결론적으로 이순신은 우리 역사상 최고의 작전적 수준의 지휘관이다. 그는 최고의 작전적 수준의 지휘관으로서 오늘날 말하는 작전적 지휘관으로서 수행할 역할을 충실히 완수한 지휘관이다. 또한 그는 작전적 수준의 작전수행, 전쟁수행에 있어서 군수가 갖는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핵심 기능으로서 작전적 군수를 이해하고 실천한 지휘관이다.

본고에서의 전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피·아의 전투준비 차원 (작전적 군수 차원) 군사력(수군)의 건설과 복원, 전투(해전)의 결과로 나타난 해상교통로와 병참선의 유지 문제 등에 중점을 두고 작전적 군수라는 의미를 역사적 사실과 결부하여 설명하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기술하면, 임진왜란 승리의

요인을 이순신의 작전적 군수라는 실천과 그 성과에 있음을 평가한 것으로 크게 3가지 측면으로 분석하였다.

첫 번째 이순신의 작전적 군수차원의 수군 건설과 수군의 전투력 복원이다. 이순신은 임진년 싸움이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강화교섭기 동안 그 간의 전투에 대한 피해복구와 추가적인 전투력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 이러한 과정은 칠천량 해전 이후 완전히 무너진 조선 수군의 복원과 재건설 과정에서 한번 더 나타난다. 지휘관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나 당시 이순신의 상황을 고려하면 그가 얼마나 위대한 지휘관이었는지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순신은 수군을 위한 제반 모든 군수적 조치를 조정(정부)의 지원없이 해결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수군 병력의 확보, 군량의 확보, 전선의 건조 등 작전적 차원의 제반 군수적 전투준비를 스스로 해결하였다.

두 번째 일본의 오판이다. 일본의 오판은 일본의 전쟁수행에 있어서 작전적 군수측면의 결정적인 패인이 된다. 일본은 조선 수군의 능력을 경시하였으며 일본군이 조선에 상륙하면 조선 백성은 이들을 환영할 것이라는 오판을 전제로 전쟁을 시작한다. 일본 수군은 해상에서 적극적인 전투세력이 아닌 단순한 수송의 임무를 수행하는 수준의 전략과 전력으로 강력한 이순신 수군을 상대로 매번 패퇴할 수 밖에 없었다. 이 결과 일본은 대마도에서 부산에 이르는 해상교통로는 물론 남해에서 서해로 이어지는 해상 병참선을 이용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해상의 융통성 상실은 현지조달을 위한 조선의 곡창지대인 전라도 지역에 대한 진출이 근원적으로 차단되는 결과로도 연결된다. 또한 조선 백성들은 그들이 예상치 못한 항전의식을 바탕으로 의병활동을 전개, 육로 병참선을 차단하는 세력으로 형성되어 해상 및 육상 병참선이 모두 차단되고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일본은 장기전에 대한 준비 소홀로 조선의 혹독한 겨울 추위로 전투력 손실을 입는 등 일본은 전쟁에 있어 작전적 군수 측면의 실패로 결국 전쟁의 패배를 초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세 번째 이순신 주요 해전 승리는 작전적 군수 차원의 승리가 된다. 본고에서는 한산 해전, 부산포 해전, 명량 해전을 중심으로 그 작전적 군수 차원의 평가를 해보았다. 먼저 한산해전은 작전적 군수 측면에서 조선함대의 해상통제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된다. 이를 통하여 전라도와 충청도를 확보하여 조선

의 전쟁지속능력을 유지하는 전과를 올리는 동시에 서해 해상교통로를 이용하여 서진할 수 있는 일본 수군의 중요한 방책을 저지함으로써 일본군의 수륙병진작전과 서해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해상보급선을 차단하는 효과를 얻었다. 다음, 이순신은 부산포 해전시 부산이라는 조선침략의 교두보이자 군수지기, 일본 수군의 근거지를 직접 타격하였다. 부산은 왜군의 병력증강과 군수지원을 위한 수송선단이 출입하는 거점이었으며 북상한 왜군의 보급기지였다. 부산포 해전 이후 일본군의 해상 통제권은 상실되었으며 일본의 수륙병진 전략이 분쇄된 것은 물론 해상 보급로는 지대한 위협을 받게되어 강화교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는다. 마지막으로 명량해전의 작전적 군수차원의 의미이다. 일본군은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을 거의 괴멸시킴으로서 제해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 반대로 조선 수군으로서는 임진년 이래 처음으로 제해권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다. 조선수군으로서는 수군을 수습하여 일본수군의 서침을 저지하지 않는 한 전쟁의 승리란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일본군은 칠천량 해전 이후 확보한 제해권을 바탕으로 다시금 임진년에 획책했던 군량확보를 위하여 전라도 지방 진출을 위한 수륙병진공격을 감행하였다. 명량해전은 이를 저지한 해전으로서 명량해전의 승리는 전쟁승리에 직결되는 전략적이며 작전적 차원의 승리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주요어】 이순신, 작전적 수준, 작전적 군수, 수군건설, 한산해전, 부산, 포해전, 명량해전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 2 장 작전적 군수의 이론적 고찰	3
제 1 절 군수의 개념과 수준	3
제 2 절 작전적 수준의 개념	4
제 3 절 작전적 군수의 개념/ 역할	6
제 3 장 작전적 군수 차원의 임진왜란 승리요인 분석	8
제 1 절 이순신의 작전적 군수 차원 조치 : 수군 건설과 복원	9
1. 수군병력 확보	9
2. 군량 확보	13
3. 군선 현황 및 제조	16
제 2 절 이순신 해전의 작전적 군수 측면 평가	19
1. 일본의 해군전략	19
2. 작전적 군수 측면에서 바라본 일본의 오판	21
3. 조선의 해군전략	24
4. 이순신 주요 해전의 작전적 군수 측면 평가	26
제 4 장 결론	37

【참고문헌】	40
ABSTRACT	42



【 표 목 차 】

[표 1] 조선수군 변화현황	13
[표 2] 임진년 해전 일람표	17
[표 3] 강화교섭기 조선수군 전선수의 변화	18
[표 4] 임진년(1592) 경상도 상주와 전라도 장수의 겨울날씨 비교	23



【 그림 목 차 】

<그림 1> 한산 해전도	29
<그림 2> 부산포 해전도	33
<그림 3> 명량 해전도	35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군의 지식정보화 및 첨단과학화는 전장의 범위를 광역화하고 있으며 전쟁에 소요되는 시간을 점차 단기전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현대전 및 미래전에서는 국가이익을 대변하는 국가전략 및 군사전략을 실천적인 군사작전화하는 작전술의 중요성은 합동 및 연합작전 형태로 더욱 대두될 것이다. 이러한 현대전과 미래전의 변화에 있어서 작전계획을 현실에 실현가능하게 하는 군수기능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우리는 최근 이라크 전쟁 등 현대전과 과거의 많은 전쟁을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군수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인식해왔으며 군수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전쟁에서의 승리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문제와는 달리 실제 우리군의 현실은 아직도 군수를 단지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하나의 수단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전쟁의 승패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작전적 군수 차원에서 임진왜란 시 이순신 해전을 재평가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러한 연구논제를 선택한 이유는 임진왜란의 승리에 있어서 이순신 장군의 해전 승리가 결정적이었음은 누구나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이순신 해전에 관한 연구가 해군전략 및 전술 측면에 집중되어 이순신 해전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특정 측면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작전적 군수」라는 추가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작전적 군수라는 프리즘을 통하여 임진왜란 승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요소들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한 요소들은 이순신 해전 승리가 갖는 의미 중 작전적 군수 차원의 조선과 일본 양측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일본의 수군전략을 바탕으로 본 일본의 오판, 이순신의 작전적 차원의 전투준비를 포함한다.

이를 통하여 임진왜란 승리에 있어서 작전적 군수의 영향과 그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을 함으로써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방법은 대부분 참고문헌 위주의 서술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였으며, 난중 일기 등 역사적 사료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연구되어 출판된 단행본과 관련 논문, 야전교범 및 육군대학 발간 군사평론 등 이순신 해전관련 다양한 문헌을 참고하였다.

연구범위는 이순신 해전 중 작전적 수준에서 의미를 갖는 주요 해전 위주로 연구하되 초점은 작전적 군수 차원에서 해전이 갖는 의미를 재확인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 2장에서는 먼저 작전적 군수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용병술¹⁾의 수준과 맥을 함께 하는 군수의 개념과 수준, 작전적 수준의 개념과 역할을 정립하여 이후 기술될 이순신 해전의 작전적 군수 측면에서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있어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3장에서는 이순신 해전의 작전적 군수 측면 평가를 위하여 우선 각종 연구 자료에 산발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임진왜란 발발전, 임진왜란 발발이후 이순신 장군이 해전을 위해 준비한 군수적 조치를 망라하여 정리함으로써 이순신 장군의 작전적 군수 마인드를 확인하고, 당시 조선과 일본의 해군전략을 확인하여 주요 이순신 해전을 통한 작전적 군수 차원의 해전 승리의 의미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1) 용병술이란 국가 전략개념 하에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활동으로서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군사전략, 작전술 및 전술을 망라한 이론과 실재를 의미한다.

제 2 장 작전적 군수의 이론적 고찰

제 1 절 군수의 개념과 수준

“작전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군수는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 작전을 그르치면 전투에서 패배하지만, 군수를 그르치면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말이 있듯이 군수지원은 전승의 요체이다. 군수문제가 배제된 전쟁논의가 있을 수 없으며, 많은 전쟁연구가나 전쟁을 경험한 명장들의 회고록을 통해서 이를 증명하고 있다.²⁾

야전교범 4-0 「군수업무」에 기술된 군수의 정의를 살펴보면 군수란 “군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효과적, 경제적, 능률적으로 획득, 관리, 운용하여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미 육군 군수교범(FM 700-80)은 군수란 “전투력의 이동과 유지를 계획하고 운용하기 위한 과학”으로 정의하고 있어 설명하는 용어는 다르지만 군수는 전승의 조건으로서 동서고금을 통해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위 군수에 대한 정의를 종합하면 군수는 전략과 전술에 생명을 불어넣는 동력(에너지, 자원)일 뿐 아니라 전략과 전술을 제한하거나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군수의 주 기능은 군사력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즉 군수는 작전을 위한 부대준비태세의 유지, 결정적인 인원 및 물질적 자원을 동원하여 의도하는 작전지역으로 부대를 이동시키는 활동, 전 작전기간에 걸쳐 부대의 작전지속능력 유지, 평화 시 또는 전쟁 종료 후에 기지나 다음 우발지역으로의 부대 재전개, 전투력 회복 및 자원의 복원활동 등의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군수는 전쟁수행을 위한 수단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들을 다루는 질서와 다름이 없다. 군수는 군사작전의 세 가지 수준과 유사하게 서로 조화를 이루는 세 가지 수준, 즉 전략적 군수, 작전적 군수 그리고 전술적 군수로 구분할 수 있다.³⁾

2) 교육사령부(2009) 『야전교범 4-0 군수업무』 p.1-3.

3) 최영호(2008) “작전적 군수” 『군사평론393호』, (대전 : 육군대학), p.205.

제 2 절 작전적 수준의 개념

작전적 군수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용병술의 수준 중 작전적 수준이라는 개념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전쟁의 수준(The Levels of War)’을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으로 구분하기 시작한 것은 미군이었으며, 다음과 같이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전쟁을 수행하는 수준은 전략적 목표로부터 전술적 행동까지를 명확하게 연결하는 교리적 개념이다. 각 수준별 행동들은 어느 특정 지휘수준, 특정 부대 규모, 특정 장비 및 전력형태 등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대신 이러한 행동들은 전략목표, 작전적 목표, 전술적 목표를 달성하는 기여도 또는 효과에 기초하여 ‘전략적’·‘작전적’·‘전술적’ 행동으로 정의된다.’⁴⁾

작전적 수준은 전구 또는 작전지역에서 전략목표달성을 위해 전역과 대규모 작전을 수행하고 이를 지원하는 수준이다. 작전적 수준은 전력의 전술적 운용과 전략적 목표를 연결한다. 작전적 수준은 전구 전략, 전역, 대규모작전과 전투를 기획, 조직, 통합하고 수행함으로써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작전술에 초점을 둔다. 전역은 주어진 시간과 공간 내에서 전략적 목표 또는 작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군사작전들과 관련된다. 대규모 작전은 작전지역에서 작전목표 및 필요시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시간과 공간상에서 통합된 단일 또는 다수의 군종들로 이루어진 다양한 전투력으로 수행되는 일련의 전술적 행동들(전투, 교전, 타격 등)이다. 이러한 행동들은 단일 계획 및 지휘 하에서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수행되고 통제된다.

작전적 수준은 통상 시간과 공간상에서 전술적 수준보다 범위가 넓다. 작전적 수준의 지휘관에게 요구되는 전략적 관점은 직접적인 상황을 넘어서 바라보는 것이다. 즉, 전술지휘관들이 현행작전을 수행할 때, 작전적수준의 지휘관들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각종 사태들을 보다 앞서서 멀리 그리고 깊게 사고하는 것이다. 그들은 전역에서 전술적 행동을 수행하는 예하지휘관들에게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 장차 다가올 긍정적인 사태들이 실현 가능해지

4) M. Wade. Norman., *The Operations Smartbook*, The Lightning Press, 2002, p.1-9.

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다시 말해 작전적 수준이란 의미는 국가전략을 수반하여 군사자원을 수단으로 군사 작전화하고 예하 전술적 부대들에 대한 지도활동을 통하여 예하 전술 제대들의 연속적, 동시적인 전투 활동을 조직하고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며 전술적인 성과를 확대해야함을 의미한다. 전쟁에 있어 작전적 수준은 전쟁의 승리와 직결되는 국가전략과 군사전략, 전술적 전투 활동을 연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면 되겠다.



제 3 절 작전적 군수의 개념/ 역할

우리 군의 합동교범 4-0 합동군수에 의하면 작전적 수준의 군수는 전략적 군수와 전술적 군수를 연결시키는 것이다.⁵⁾라고 명시되어있다.

추가적으로 미 야교 100-7 “전구작전에서의 육군”에 의하면 작전적 군수는 전구 내에서 수행되는 전역과 대규모 작전간 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요구되는 군수 지원 및 기타 지원활동으로 구성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게다가 작전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군수는 기동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이는 전역과 대규모작전을 수행하는데 있어 군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작전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⁶⁾

즉 작전적 수준의 군수는 주요 작전과 전역을 계획하고 수행하기 위하여 작전목표, 작전개념에 따라 각 제대의 책임지역과 전투력을 할당하고 그 역할을 지정해 주며, 작전을 협조 및 통합시키는 것으로 효율적인 작전 진행을 위하여 가용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운용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작전술제대 지휘관은 작전술차원에서 가용한 군수지원능력 범위 내에서 작전해야 하므로 군수지원요소를 적절히 작전 상황에 부합되게 운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고대전쟁인 칸네전투에서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은 로마군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로마군 보급창과 남부 아폴리아 곡창지대를 점령하여 군수지원 능력을 파괴한 후 로마의 바로군을 섬멸하고자 했다. 한니발의 이러한 판단은 현대적인 전략, 작전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전쟁승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작전적 수준의 판단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작전적 수준의 군수는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아군의

가용한 군수지원능력 범위 내에서 작전을 하고 군수지원요소를 적절히 작전 상황에 부합되게 운용하는 것과 동시에 적의 군수지원능력을 제거함으로써 전

5) 국방대학교 합동참모대학(2009) 『합동교범 4-0』, (서울), p.32.

6) 정연우(2007) “작전적 수준의 전장기능” 『군사평론386호』, (대전 : 육군대학), p.37.

쟁 승리를 도모해야하기 때문이다.

즉 전쟁 승패와 직·간접적으로 연계성을 이루는 작전적 군수란 관점은 ① 아군의 작전적 군수 지원을 보장하는 것과 ② 적의 작전적 군수 지원을 차단하는 두가지 측면 모두를 포함한다고 하겠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임진왜란 시 이순신 해전의 작전적 군수차원에서 평가함에 있어서 그 중점은 우선 임진왜란 시 이순신 장군의 군수적 조치를 조명하고, 이순신 해전이 일본의 전쟁수행에 끼친 군수적 영향을 재평가 하는데 있으며, 임진왜란을 하나의 전역으로 판단하고 이 전역에서 이순신의 군수적 조치와 해전의 승리가 작전적 군수 차원에서 갖는 의미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 3 장 작전적 군수 차원의 임진왜란 승리요인 분석

앞에서 작전적 군수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는데 작전기간에 걸쳐 부대의 작전지속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작전적 전투근무지원의 기능이다. 따라서 작전적 군수에서는 전투근무지원기능 외에 작전을 위한 부대준비태세 유지, 작전지역으로의 부대이동, 전투력 회복 및 자원의 복원활동이 포함된다.

작전적 수준의 군사작전에서는 전술적 수준의 군사작전과 다르게 군수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략적 또는 작전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군수만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지만 군수의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쟁 패배의 원인이 된다. 게다가 전역 및 대규모 작전에서 군수는 작전의 성격과 템포를 결정하는 지배적인 요소이므로 작전적 수준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능이 바로 군수라고 할 수 있다.⁷⁾

임진왜란 당시 전역 및 대규모 작전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그 자체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작전적 군수의 기능은 조선에게는 전쟁 수행에 필요한 부대준비태세 유지 및 전투력회복과 자원의 복원이, 일본에게는 작전지속능력 유지에 있었을 것이다. 일본의 작전지속능력 유지를 위해서는 조선 내에서의 전쟁수행을 위한 장기적 군수지원 문제 판단 및 조치, 병참선 유지, 군수물자의 한반도내 현지조달 등이 원활했어야 했다.

이순신은 조선 수군의 전투준비태세와 전쟁 진행 간 지속적인 전투력 회복 / 복원, 그리고 일본의 병참선 및 현지 군수조달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작전적 군수 차원의 승리로 결국에는 전쟁 승리를 획득하게 된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이순신의 작전적 군수 차원의 의미를 갖는 수군 건설 및 복원과 주요 해전이 갖는 작전적 군수 차원의 의미를 논하고자 한다.

7) 정연우, 전계논문, p. 39.

제 1 절 이순신의 작전적 군수 차원 조치 : 수군 건설과 복원

이순신의 작전적 군수 차원의 조치란 의미는 작전적 군수의 기능 중 전쟁수행에 필요한 부대준비태세 유지 차원의 전투력 건설 및 복원을 의미한다.

이순신은 조정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었으며 민간의 경제기반이 무너진 상황에서 스스로 수군을 건설하고 싸워야했다. 이순신의 수군은 조선 전력의 핵심으로서 이순신의 수군 건설 및 복원은 전쟁 수행을 위한 작전적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군수적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수군병력의 확보, 군량의 확보, 군선의 건조 측면에 중점을 두고 알아보고자 한다.

1. 수군병력 확보

수군 병력의 확보는 전투력의 손실이 지대했던 임진년 이후 강화교섭기(1593년 ~ 1597년 초 : 임진년 전투 종료 후 ~ 정유재란 발발이전) 수군의 재정비 기간과 명량 해전이후 고금도 기지에서의 수군의 복원 기간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이 양개 기간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임진년 전투와 칠천량 해전 후 수군의 손실과 보충을 위한 이순신의 수군 복원 활동의 하나인 수군 확보가 가장 필요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가. 강화교섭기 수군 재정비 기간 중 병력의 확보

강화교섭기 초기(1593년) 수군의 수는 조선왕조실록을 토대로 해군사관학교에서 출판된 「조선시대 수군관련 사료집 III」에 나타난 근거로 알 수 있다. 선조 26년(1593년) 1월 11일 조선왕조실록은 각 도의 병력에 대한 집계보고를 선조에게 한다. 기록에는 ‘전라도 순천부 앞바다에 본도좌수사 이순신의 수군 5천명’이라고 기록되어있다⁸⁾.

임진년의 부산포 해전 당시 전선수가 81척⁹⁾으로 판단되고 해군사관학교 이민웅 교수의 「임진왜란 해전사」에 기록된 전선당 약 120명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판단한 것¹⁰⁾을 근거로 계산하면 부산포 해전 시 수군은 9720명으로 부속선까지 고려하면 10,000명 정도였을 것이다. 즉 1593년 수군의 수를 고려 시 부산포해전 이후 전력 이탈(도망, 병으로 인한 손실 등)이 얼마나 컸는지

8) 김주식외(2000) 『조선시대 수군관련 사료집 III』, (진해 : 해군사관학교), p. 330.

9) 이순신 해전의 전선 수에 대해서는 본 논문 ‘군선 현황 및 제조’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10) 이민웅(2004) 『임진왜란 해전사』, (서울 : 청어람 미디어), p. 246.

알 수 있으며 이순신에게 수군 확보가 얼마나 절실했던 문제였는지 가늠케 한다. 여기서 당시 일본군의 수는 얼마나 되었는지 알면 이순신의 수군 확보의 절박성과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어 질 것이다. 선조 27년(1594년) 4월 17일 조선왕조실록은 일본 수군의 현황을 파악하여 선조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하는 부분이 있다.

...거제 등 여러 곳의 영루를 두루 살펴보았는데 거제의 적은 대략 5~6천 명이고 웅천은 약 4~5천 명이고, 김해·용당·죽도의 적은 거제에 비해 더 많을 것 같으니 통틀어 4~5만 명은 될 것이다....

다시말해 임진년의 싸움 후 일본군의 수(비록 육지에 주둔해 있다 하더라도 수군으로 즉각 전환될 수 있는 적 군사의 수)가 조선 수군의 10배에 가까운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조선수군의 재정비 소요 중 병력의 확보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다. 이순신의 수군 확보는 임진년의 해전 후 병력의 기피 현상,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한 병력 손실 등으로 발생한 병력부족 현상을 타파하는데 그 중점이 있었을 것이다. 이순신은 강화교섭기 기간 중 병력의 유지 및 확보를 위해 작전적 수준의 지휘관으로서 밖으로는 조정을 상대하여 설득하고, 안으로는 엄격한 규율을 바탕으로 병력문제를 해결한다. 이순신은 1593~95년 사이에는 병력유지를 위해, 이후 정유년(1597)초까지는 병력 충원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이순신의 병력확보를 위한 노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¹⁾

첫 번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순신은 현대적 의미의 작전적 지휘관의 역할 중 하나인 정부(조정)의 전략지시에 대한 명확한 의견(제한사항과 전쟁 승리를 위해 군 지휘관의 입장에서 바라본 전문가적인 의견 또는 소신)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즉 조정의 수군 병력 정책에 대한 작전적 차원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수군을 유지, 확보한다. 당시 수군은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직계 가족은 물론 친족에게까지 대신 징발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전쟁에 대한 염증을 느끼고 있던 백성들의 불만은 조정으로 전달되어 당시 정

11) 이민웅, 전계서, pp. 150~154.

발하는 방안을 폐지할 것을 명령한다. 그러나 이순신은 전쟁 중 최소한의 수군 병력 유지를 위한 불가피성을 근거로 이 명령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두 번째 엄격한 군법을 적용하였다. 도망병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처형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유지함은 물론 도망자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또한 각 고을의 모병을 책임졌던 관리들을 통하여 징발을 독촉하는 한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못한 지방관리는 엄중 경고하거나 법대로 처벌하였다.

세 번째 의병과 승병을 수군에 편입시켰다. 이들은 전쟁 초기 일본군의 전라도 침입을 막기 위해 요충지에 복병으로 설치되기도 했으며 수군이 부족하자 직접 전선에 승선하여 해전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네 번째 경상도나 내륙에서 피난민이나 떠도는 백성을 구호하고 안집시킨 것이다. 이들 유입 인구는 둔전 경영에 투입되거나 병력으로 충원되어 매우 중요한 병력 공급원이 되었다.

이와같은 이순신의 노력은 확실한 결실로 이어진다. 이 결실, 즉 수군의 수증가는 강화교섭기가 끝나가는 1597년(선조 30년) 5월 12일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수군의 군선 수를 헤아리면 병력 수를 알 수 있다. 비변사는 수군과 육군의 군사작전 계획을 선조에게 건의하면서 권율의 장계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도원수 권율의 장계를 보니 지금 한산도에 도착한 배는 134척이고 아직 도착하지 못한 배는 5~6척이며 따로 건조 중인 배는 20일 사이에 건조가 끝나는 배가 48척이라 했습니다. 모두 계산하면 180척에 이르는데...¹²⁾

따라서 180척에 120명씩 탑승 계산시 21,600명이 된다. 강화교섭기 초기보다 무려 5배 이상 증가한 수이다.

나. 명량 해전 이후 고금도 기지에서의 병력의 확보

명량해전은 칠천량 해전의 패배 후 조선수군이 수군력 재건을 위한 여건을

12) 김주식외, 전계서, p. 819.

조성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명량해전 이후에 수군 병력 문제는 이순신에게 또 한번의 중요한 재건 과제로 대두된다. 이때의 병력 확보 방안에 있어서는 자세히 연구된 자료가 제한된다.¹³⁾ 다만 피난민 등 떠돌던 백성과 군인들이 이순신의 곁으로 이동하여 안착하는 것이 당시에 가장 안전한 살 길이라는 생각이 팽배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장병과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이순신 수군에 모여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¹⁴⁾ 명량해전 전후한 시기에 천 오백여명 병력이 고금도로 이진할 때에는 두배 이상 증가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노량해전에 참전한 군선의 수가 약 80척으로 추정하면 전선에 승선할 병력이 척당 120명으로 계산하면 9,600명이고 전선에 부속된 선박에 탑승 인원까지 합하면 1만여명으로 추정된다.¹⁵⁾ 정유년 이래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정도의 병력의 확충과 군선의 증가를 이뤄낸 것은 이순신의 역량의 결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언급한 수군 변화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표-1>과 같다.¹⁶⁾



13) 김주석외, 전계서, p. 237.

14) 조선왕조실록 선조 31년 12월 7일 좌의정 이덕형은 선조에게 이순신에게 상을 내릴 것을 내용으로 한 장계를 올리는데 장계에는 “...신이 본도에 들어가 해변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니 모두가 그를 아끼고 한없이 칭찬하고 추대하였습니다. 또 듣건데 그가 금년 4월에 고금도에 들어왔는데 모든 조치가 매우 잘하였으므로 겨우 3-4개월이 지나자 민가와 군량의 수효가 지난해 한산도에 있을 때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그의 재능이 뛰어난 줄 알았습니다...”라고 기록되어있다.

15) 김주석외, 전계서, p. 246.

16) 부산포 해전을 기준으로 한 것은 이순신이 수군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노력과 성과가 있었던 시기가 부산포 해전 이후 강화교섭기이기 때문이다.

시 기	병력수	근거	증감
부산포 해전 시 (1592년 9월)	약 10,000명	이민웅, 인진왜란 해전사	.
선조 26년(1593년) 1월 11일	5천명	조선왕조실록 (전라좌수군)	-5,000여명
선조 30년(1597년) 5월 12일	21,600여명	조선왕조실록의 전선수 고려 판단	+16,600여명
명랑해전 전후	1,500명	이민웅, 인진왜란 해전사	-11,100여명
노랑해전 (칠천량 이후~노랑해전)	약 10,000명		+8,500여명

<표-1> 조선수군 변화현황

2. 군량 확보

이순신의 수군은 조선 전력의 핵심으로서 수군의 먹는 문제는 국가 핵심전력 유지라는 중대한 작전적인 군수 차원의 문제였다. 그러나 이순신 수군은 명나라의 군량과 말먹이 조달이 당시 최대의 고민사항이었던 조선 조정으로부터 최소한의 지원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전쟁의 장기화에 따라 군량의 근본 공급원인 백성들의 농업생산마저 중단되어 수군의 군량 조달은 이순신이 해결할 또 하나의 과제였다. 수군의 군량 소요는 전라도 수군만 해도 매일 도정한 쌀 100가마, 도정하지 않은 벼로는 200가마가 필요한 막대한 양으로 추정된다.¹⁷⁾ 따라서 이순신은 수군을 먹이고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17) 장한식(2009) 『이순신 수군 프로젝트』, (서울 : 행복한나무), p. 132.

이는 갑오년인 1594년 3월 10일 장계를 기초로 추산한 군량으로써 장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라 좌우도의 전선은 본시 있던 것과 새로 만든 것을 물론하고 먼저 집합한 것이 110척이요, 사후선도 110척이라 사부, 격군을 합해 무려 1만 7,000여명이나 됩니다. 1명당 아침, 저녁으로 각각 5홉씩 나누어 준다면 하루 먹을 것이 적어도 100여석이요, 한달에 드는 것이 3, 400여석입니다. 경상우도는 벌써 바닥이 나서 식량을 각출할 도리가 없고 전라도 열 고을(수군 소속)만 쳐다보는데 열 고을에서도 남아있는 군량에서 백성을 구제할 곡식을 제하고 나면 수군들 먹을 군량은 겨우 앞으로 두달 남짓, 5월 보름께 밖에 더 계속되지 못할 실정입니다.”

록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다. 이순신이 이를 위해 버려진 땅에서 둔전을 경영하고 물고기 잡이, 해조류 채취, 소금 생산 등 바다 농사를 본격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다.

가. 둔전 경영

둔전은 원래 국방상의 요충지에 주둔하고 있는 군사로 하여금 황무지, 진전 등을 개간·경작케하여 군수에 충당하는 군사목적용 특수지목을 말한다. 조선 왕조에서는 본래의 군수목적용 토지를 포함하여 중앙과 지방의 각 기관이 재정충당을 목적으로 설치한 토지를 모두 둔전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¹⁸⁾

이순신의 난중일기에 둔전에 관한 내용은 수없이 등장한다.¹⁹⁾ 그만큼 고민스럽고 중요한 문제라는 반증일 것이다.

당시 군량미를 비롯한 군수의 조달은 전쟁성패를 기능할 정도로 절박한 것이었고 이 때문에 조선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군수조달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였다. 여러 가지 방안중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한 것이 둔전개설이었다. 임란기의 둔전은 17세기 이후 둔전제의 추이를 일정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시기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각종 면세전의 단초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²⁰⁾

성균관대학교 이장희 교수는 「임진왜란사 연구」에서 임진왜란 중 조선 전체의 둔전에 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서 둔전의 성과가 가장 컸던 곳은 이순신의 관할 하에 있던 남해 도서지방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주목할 것은 그 규모를 알게 하는 내용이다. 선조 27년에 경작한 둔전곡 500석을 다음해 종자로 쓰게 하였으며 이는 남해도서의 이순신이 관할하는 둔전의 규모가 방대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²¹⁾ 이순신은 전쟁 초기부터 군사와 백성을 동원하여 해변의 버려진 땅을 일구어 수군의 둔전을 개간하였다. 둔전 경영은 군량확보에 보탬이 되었을 뿐 아니라, 떠도는 백성을 안집시키는 효과도 있었

18) 송양섭(1999) "임진왜란기 국가의 둔전 설치와 경영" 『한국군사사 논문선집』, (서울 : 국방군사연구소), p. 521.

19) 장한식의 『이순신 수국 프로젝트』에서는 끼니문제가 이순신의 최대 고민거리중 하나로 난중일기에 군량미 관련 내용이 수백 건에 걸쳐 나온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순신 수국 프로젝트』에는 이중 의미있는 난중일기 내용을 1593년 6월 3일 일기로부터 1596년 8월 19일 일기까지 총 39일의 일기를 소개하고 있다.

20) 송양섭, 전제논문, p. 523.

21) 이장희(1999) 『임진왜란사연구』, (서울 : 아세아문화사), p. 281.

다.²²⁾

이렇게 모여든 백성들은 나름 안정적인 둔전 경영의 한 요소로서 작용하였을 것이다. 임란기 둔전의 경영형태는 ㉠ 군졸, 승군 등 신역에 의한 경작형태 ㉡ 유민을 모집하여 경작하는 형태 등 이 있었는데 선조 26년 이순신은 둔전개간을 위해 유민을 모집하여 해도의 둔전을 결작하게 하여 그 소출을 반으로 나누게 하였다는 기록도 있다.²³⁾

따라서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은 국가차원으로는 세금을 면제받은 둔전의 형태로 유목인을 활용하여 위기상황속에서 나름 안정적인 군량미를 확보 / 조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바다 농사

이순신은 둔전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군량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노력의 하나로 물고기를 잡고 소금을 생산하였다.

먼저 고기를 잡아 수확한 것을 쌀과 교환해 군량을 확보한 예는 을미년(1595) 겨울의 난중일기에서 확인된다. 그 해 11월말과 12월 초에 청어 1만 3천여 두름과 7천여 두름을 각각 곡식을 사러갈 때 배에 실어 보낸 사실이 있다.

을미년 11월 21일 - 저녁에 청어 1만 3,240두름을 곡식과 바꾸려고 이종호가 받아갔다.²⁴⁾

을미년 12월 4일 - 황득중, 오수 등이 청어 7,000여 두름을 싣고 왔다. 그래서 김희방의 곡식 사러 가는 배에 계산하여 주었다.

또한 소금 생산을 위한 가마솥을 주조한 사실이 난중일기 을미년 5월 17일, 19일, 24일에 나타나 있다. 이는 소금이 군량 확보를 위한 또 하나의 수단으로써 소금을 구워 판매하여 곡식 몇 만석을 비축했다는 기록이 있다.

22) 이민웅(2004) 『임진왜란 해전사』, (서울 : 청어람 미디어), p. 157.

23) 이순신 『이충무공전서』

24) 고기를 한 줄로 열 마리씩 두 줄로 길게 묶은 것을 두름이라고 한다. 한 두름은 20마리로서 1만 3,240두름은 26만 4,800마리인 셈이다. 당시 어획고가 상당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이와 같은 바다 농사를 통하여 확보한 군량의 양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군량 조달의 한 방법이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다. 명량 해전 이후 고하도 기지에서의 군량 확보 노력

고하도는 고금도로 이전하기 직전의 수군 기지로 목포 남서쪽으로 2km 떨어진 섬이다. 이순신은 고하도에서 수군 재건의 일환으로 군량확보를 위하여 한산도에 있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금을 생산하는 방법 외에 몇 가지 방법을 동원한다.

첫째 방법은 백성이 일본군을 피해 추수하지 못했던 전라도 해안지역에 군사를 파견하여 그 수확물을 거둬들이는 것이었다.

둘째 방법은 의곡을 모집하는 것과 휘하의 장관들을 통해 모곡하는 것이었다. 휘하의 장관들을 각처로 파견하여 군사모집과 더불어 군량을 확보토록 하였다. 그 한 실례로 1597년 11월 5일 영암군수 이종성은 이순신에게 군량미 200석과 중조 700여석이 준비되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셋째로 해로통행첩을 발행하여 주변의 피난선들로부터 군량을 모집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하여 10여일만에 만여석의 군량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한다.²⁵⁾

3. 군선 현황 및 제조

군선은 해전 승리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였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순신은 일본수군에 비해 우수한 판옥선과 거북선을 건조케하여 연전연승을 위한 기본 전력을 구축한다.

가. 임진년 군선의 현황 변화

이순신의 출전은 1592년 5월 7일 옥포해전으로 시작된다. 옥포해전 당시 조선 수군의 참전 전력은 전선 28척, 협선 17척이다. 임진년의 마지막 해전인 부산포 해전 시 조선 수군의 군선 전력은 전선 81척, 협선 92척으로 최초 옥포해전과 비교 시 약 4배가 넘는 전력이 향상됨을 알수 있다. 다음 <표-2>은 임진년의 해전에 참가한 조선 군선의 현황이다.

25) 유성룡 『징비록』 권 2, 28면.

출전	해전	날짜	조선 참전 군선	비고
제 1차 출 전	옥포해전	1592. 5. 7	전선 28, 협선 17	
	합포해전		상동	
	적진포해전	1592. 5. 8	상동	
제 2차 출 전	사천해전	1592. 5. 29	전선 26, 협선 20 (추정)	거북선 참전
	당포해전	1592. 6. 2	상동	
	당항포해전	1592. 6. 5	전선 51, 협선 50 (추정)	연합함대 형성
	당포해전	1592. 6. 2	상동	
제 3차 출 전	한산대첩	1592. 7. 8	전선 59, 협선 50 (추정)	
	안골포해전	1592. 7. 10	상동	
제 4차 출 전	부산포해전	1592. 9. 1	전선 81, 협선 92척	

<표-2> 임진년 해전 일람표(출전 : 이순신, <임진장초> ; 이형석,
1967<임진전란사> 등 연구상과종합)

위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조선 수군은 1592년 5월초부터 진행된 세 차례의 출전을 수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전선을 더 건조하고 무기를 준비하는데 박차를 가했다. 이 사실은 같은 해 8월 1일 전라 좌우도 수군이 좌수영에 모였을 때 전선 척수가 한산대첩 때의 52척 보다 40%이상 늘어난 74척으로 증가한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²⁶⁾ 이는 새로운 군선의 건조보다는 기존의

전선을 정비하여 운용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 강화교섭기 전선 건조

강화교섭기 동안 이순신은 전선 건조에 주력한다. 강화교섭기에 접어든 1593년 5월의 출동때는 연합함대의 세력이 전선 96척, 사후선 108척으로 증가하였다.²⁷⁾

이와같은 전선의 건조는 조정의 수군력 강화 의도와 이순신의 전선 건조 계획이 일치했던 것으로 비롯되었다. 강화교섭기의 전선 수의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 기	전선 수	비 고
1593년 5월	전선 96척	.
갑오년 1594년 봄	전선 140척 (전라 110척, 충청 11척, 경상 19척)	이순신 3월 10일 자 장계
을미년 1595년 가을	전선, 거북선 건조 (수량 확인 불가)	선조실록 권 68
정유년 1597년 5월	전선 180척	도원수 권율, 체찰부사 한효순 장계

<표-3> 강화교섭기 조선 수군 전선의 수 변화
(출전 : 이민웅, <임진왜란해전사> 내용을 표로 재구성)

부산포 해전 시 전선 81척을 고려 시 강화교섭기 동안 99대의 추가적인 전선을 건조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선 건조는 이순신의 노력과 수군, 백성들의 희생으로 만들어낸 값진 성취라고 할 수 있다.

다. 명량해전 후 전선 건조

원균이 지휘한 칠천량 해전의 결과는 참담하였다. 조선 수군은 완패를 하였

26) 이순신 『임진장초』 만력 20년 9월 17일자 계본

27) 이순신 『임진장초』 1593년 5월 14일 장계

고 전선은 명량해전 당시 13척에 불과하였다. 이순신은 명량해전 후 고하도, 고금도로 수준 기지를 옮겨 가면서 군선 건조에 박차를 가한다. 이 기간 중 정확한 전선 건조 현황은 알 수 없으나 노량해전 시 조선함대가 80척의 전선을 이끌고 참전한 것으로 보아 약 67척의 전선을 건조한 것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이 수치는 부산포해전 시 전선의 수에 버금가는 수준으로서 당시 이순신과 조선 수군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제 2 절 이순신 해전의 작전적 군수 측면 평가

1. 일본의 해군전략²⁸⁾

조선 침공을 하기 이전의 일본 해군 전략은 해상통제보다는 해상투사(상륙작전)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나 정유재침 시 부터는 함대결전에 중점을 둔 해상통제 전략, 즉 해양적 해군전략에 대한 인식 전환을 기했다고 할 수 있다.

임란 전에 보인 일본의 해군 전략에 대한 전략적 사고는 선박자체를 전투보다는 수송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해군선박은 단지 병력을 싣는 병선(Troop ship)에 지나지 않았으며 해군은 선박으로 육군을 싣고 이를 수송하는 역할에 불과했던 것이다.

임란 중의 일본의 해군전략은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출전명령 5개항 중 해군에게 관련된 2개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의 출정에는 선박이 매우 중요하니 많이 준비한 것을 그 공으로 할 것이다. 제 부대의 선박을 기록하여 이것을 함선 감독관인 후나부교(船奉行)에게 보고하고 그 부처를 받은 후에 순차로 바다를 건널 것이다. 조선에 상륙을 완료하면 각 대의 선박에는 자기 부대의 함선에 감독관 1명을 동승시켜 대마도에 송환하고 그를 다시 후속부대에 승선시켜라. 둘째, 조선왕이 입조(入朝)를 승낙하면 앞서 명령한 서열로 상륙할 것이며 만약 승낙하지 않으면 함선을 부근의 도서에 집결하고 충분히 작전을 협의한 후 상기 서열여하에 상관없이 일시에 조선의 여러 항구에 상륙해서 진지를 선정하고 성을 견고히 하라. 그 때에 임해서 九洲, 西國 등의 병력

28) 이기식(2002) “충무공 이순신의 해양전략사상에 관한 연구” 『충무공 이순신 논문집 (해전분야)』, (해군교육사령부 충무공수련원), pp.75 ~ 79.

은 물론 나머지 해군들도 도해(渡海)하라” 이상과 같은 해군과 관련된 히데요시의 출전명령을 보면 함대결전으로 제해권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상륙하려 했던 것이 아니고 해전보다는 병력 수송에 우선순위를 주고 있던 것이다. 이러한 히데요시의 해군전략은 사실상 대단히 위험한 것이었으나 해상에서 조선해군으로부터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음으로써 상륙 계획은 아무런 피해없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히데요시는 조선 해군을 완전히 무시하고 주요 해장(海將)들까지도 육전에 참가시켰었다. 그러나 히데요시는 이순신이 경상우수역 일대에서 노략질을 하고 있던 왜함대의 일부를 공격하여 대승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하며 다시 해군장수들에게 함대를 편성하여 조선함대를 격멸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이들이 안골포에 도착하여 함선을 준비하였으나 이미 이순신 함대에 의하여 100여척의 왜전선이 격파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함선의 준비에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먼저 와기자가 지휘하는 73척의 기동함대로 조선함대를 격멸하기 위해 출전하였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학자들은 임진해전에서 빛나는 전과를 올린 이순신의 해전수행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나 이순신이 전라 수역을 통제하면서 경상좌수역에 관한 기습공격을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히데요시의 제해전략이 임진초침 시에 미흡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순신은 임진년 4차에 걸친 해전을 통하여 빛나는 해전을 실시했지만 조선과 일본의 해군전략을 비교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히데요시의 미숙했던 제해전략 사고가 이순신이 전승할 수 있었던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히데요시는 육전에서는 명군의 참전으로 수세를 취하게 되고 해전에서는 이순신 함대의 연승으로 요새 함대전략을 수행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던 것이다. 임란중의 일본해군의 기본전략은 조선함대와의 해전을 피하면서 요새화된 기지를 중심으로 장기전에 돌입했던 것이다.

즉 일본 수군의 역할²⁹⁾은 상대방의 보급로 차단이나 병력 및 군수품 운반 목적으로만 제한되었다. 일본군은 임란 개전 초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수군의 역할을 병력과 군수물자 수송에 한정했고, 해전을 통한 조선 수군의 섬멸은

29) 이민웅, 전게서, p.74.

처음부터 목표로 삼지 않았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일본수군의 병력 및 군수물자 수송이란 임무가 이순신 함대에 의해 좌절되면서 일본군 입장에서는 전쟁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쟁지속능력과 작전적 군수 지원 차원에서 큰 타격을 입게되는 것이다.

2. 작전적 군수 측면에서 바라본 일본의 오판

임진왜란을 수행하는 계획 및 실시 상에 일본은 작전적 군수 차원에서 몇가지 결정적인 실책을 범한다.

첫 번째 일본군은 조선의 수군의 능력을 간과함으로써 비롯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은 수군 전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개념적, 실천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초기 일본에게 수군은 중요한 전투세력이 아닌 단순한 보급 및 수송의 수단으로만 국한되었다. 따라서 일본 수군은 해상에서의 수군 전투기술, 군선을 비롯한 무기체계 등 해상전투를 위한 전반적인 측면에서 조선의 이순신 수군을 상대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본 수군의 열세는 부산에서 전라 앞바다에 이르는 남해상에서 조선 수군에 해상 우세권을 넘겨주는 결과가 되었으며 이는 일본이 전쟁을 수행하는 작전적 차원의 군수 측면에서 큰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 즉 일본군은 육지만을 활용한 병력의 기동과 더불어 병참선을 유지 할 수밖에 없었으며 일본 본토에서 조선으로의 해상교통로마저 위협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³⁰⁾ 해상 교통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수군 전력이 구축되어야함을 일본은 간과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의 전쟁초기 육지위주 점령 전략에서 비롯된다. 장한식의 「이순신 수국 프로젝트」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³¹⁾

조선이 비록 넓은 땅은 아니지만 22만 km²에 달한다. 15만 일본군을 조선 전역에 포진시킨다면 1km당 한명을 배치하기도 모자란다. 따라서 일본군은 조요도시(點)를 잇는 선만을 점령했을 뿐 면(面)으로 확대하지는 못하는 형편이 되었다. 비점령지는 상대적으로 넓었고 곳곳에서 의병이 나타나 병참선을 차단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한양에서 황해도를 거쳐 평양으로 잇는 서북쪽 병참

30) 부산포 해전의 결과로 일본군은 대마도-일본으로 연하는 해상 교통로마저 조선수군에게 위협받는 결과를 초래한다.

31) 장한식, 전게서, pp. 42-43

선 확보가 급선무로 대두되었다. 육로는 너무 길고 조선의 관군이나 의병에게 차단될 위협에 직면하였다. 그런 만큼 해로를 이용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작전으로 일본의 수륙병진책이 구체화된 것은 이때부터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라, 경상, 충청도를 육상을 이용 점령하면 조선 수군도 저절로 무너질 것으로 오판한 결과³²⁾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병참선 유지에 결정적인 제한을 받게 된 것이다.

두 번째 중요한 오판은 전쟁의 장기화를 예상치 못하고 그에 부합되는 군수지원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일본군은 1592년 4월 14일 부산에 상륙한 후 20일 만에 한양에 입성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임금은 한양에서 이탈한 상태였다. 조선임금의 조선반도 서북쪽 조·명 국경지대 피신은 일본이 애초 생각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일본은 한양성을 포위하여 임금의 항복을 받으려던 애초의 작전계획을 변경할 수 밖에 없었으며 1592년 5월 16일 토요토미는 한양 함락에 국한되었던 전쟁 범위를 조선반도 전체로 확대하는 새로운 작전명령을 하달한다.³³⁾ 전쟁 장기화의 징후가 시작된 것이다. 또한 전쟁은 명나라의 출병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진행되게 되며 단기전으로 예상했던 전쟁은 그해 겨울을 지나게 된다. 일본군은 이 시점에서 다음해에 강화교섭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 그것은 조선의 겨울의 추위에 대비하지 못함으로써 지대한 전투력의 손실결과이다. 1592년 겨울 조선의 날씨를 당시 경상도 상주에 피난 중이던 조정(趙靖)과 전라도 장수에 피난했던 오희문(吳希文)의 일기에 나타난 날씨에 대한 기록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³⁴⁾ 다음의 <표-2>³⁵⁾에 의하면 초겨울인 10월초에 비온 뒤 추워지는 전형적인 한반도의 겨울날씨가 시작되고, 두 지역이 비슷한 시기에 강추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지역은 남부 내륙이었으므로 당시 일본군이 주둔했던 평양과 함경도 지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곳이었다.

일본군의 선봉인 고니시 유키나가와 가토 기요마사의 병력은 일본의 남부인

32) 일본은 오판은 명나라가 도착하기 전 육지에서 벌어졌던 1592년 9월 2일의 연안성 전투와 10월 초순 제 1차 진주성 전투에서 조선의 대승을 거둠으로써 일본군의 전라도 점령 계획이 실패한다. 이는 전세의 변화와 결과적으로 오판이 실제 사실화가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3) 장한식, 전계서, p. 41.

34) 이민웅, 전계서, p. 114.

35) 상계서, p. 115.

시고쿠, 규슈 출신이 많았는데, 이들은 조선의 혹독한 겨울 추위를 처음 겪게 된 것이다.

「선조실록」에는 당시 일본군 진영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 보고가 있다.³⁶⁾

구 분	조정의 임란일기(상주)	오희문의 왜미록(장수)
10월(음력)	2일 밤에 비 3일 흐리고 바람불다 12일 찬 일기, 겨울보낼 걱정	1일 한기 3일 바람과 눈 25-26일 찬바람
11월(음력)	1-2일 매우 춥다 8일 가는 비 13-14일 매우 춥다 28일 매우 춥다	13일 풍설이 심하다 17일 찬바람 27일 찬바람 갑절 28일 눈과 추위 심하다
12월(음력)	6일 매우 춥다(동사자 다수) 9일 매우 춥다	2일 눈바람, 찬바람 거세다 9일 눈바람 강추위 11일 수일 내 찬바람 갑절

<표-4> 임진년(1592) 경상도 상주와 전라도 장수의 겨울날씨 비교

근일 적진에서 와서 말하는 자들이 모두 ‘적들이 겹저고리와 겹바지를 입는데 습관이 되지 않아 추우면 단지 불만 쪼기 때문에 피부를 데이기도 하고 목을 움츠리고 발을 꼬고 있다.’ 하니 그 용병과 전투에서 용감할지 겁을 낼지 상상할 수 없다.

조정의 일기에서 볼 수 있듯이 12월에는 동상자가 다수 발생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일본군의 심각한 육체적, 심리적 고통과 더불어 전투력의 상당한 손실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장기전에 대한 준비, 즉 전쟁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전적 수준의 군수 차원 준비가 불비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세 번째 오판은 일본군은 조선 땅을 점령하면 백성들이 일본인처럼 새 주인에게 항복하고 조세를 바칠 것으로 예상하였다는 것이다.³⁷⁾

36) 이민웅, 전계서, p. 114.

37) 상계서, p. 113.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일본 본토에서의 전쟁양상에서 나타난 일본 백성들의 모습을 조선반도에서도 동일하게 가정한 실책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 백성들은 전쟁이 일어나자 산으로 도망했고 의병에 가담하기도 하였다. 일본군의 양탈과 살육은 백성의 저항의식을 자극한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예상과 다른 양상은 조선 반도에서 장기적으로 식량을 획득해야하는 일본군에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전쟁의 장기화와 백성의 피난은 현지 조달할 수 있는 식량의 고갈을 의미하였으며 특히 백성들의 의병화는 이순신 수군에 막힌 해상 교통로 대신 부산에서 평양까지 장거리의 육상 병참선을 유지해야하는 일본군에게는 더 이상 전쟁을 끌어갈 수 없는 큰 장애요소였을 것이다. 당시 의병의 주요 타격 목표 중 일본군의 병참선이 그 대상이었음은 많은 연구 자료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3. 조선의 해군전략³⁸⁾

이순신은 일본 수군의 전략에 대한 정보 및 이해가 충분치 못하여 갈피를 잡지 못하던 조선의 전쟁 수행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장본인이었다. 비록 백의종군을 경험했으나 이순신이 중용되었다는 사실은 조선으로서는 국운을 이어가는 다행스러운 판단이었다.

조선 초에는 대명(對明) 우호관계로 북방변경이 안정되자 오히려 방왜정책에 주력하였다. 그리하여 해군력의 맹선체제(猛船體制)로 크게 증강되었으나 충청, 전라, 경상 3도 도순찰자였던 박강(朴薑)에 의해 방왜육전론이 제기되면서부터 조선조정의 군사사고가 육군 중심으로 전환되어 결과적으로 조선해군의 쇠퇴기를 맞게 되었다.

박강의 건의는 육군에 비하여 해군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해군을 축소하고 육군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있었으며 왜구는 전통적으로 해전에 강점이 있는데 조선은 기전(騎戰)에 능숙하므로 왜구가 침입해 오면 해상에서 적을 유인하여 상륙시킨 후에 조선의 장기인 기병으로 적을 섬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방왜육전론이 본격적으로 수용된 것은 중종 6년에 병조가 앞장서서 방왜육전론을 건의한 때부터였다. 배를 운용하는 것은 본래 조선의 장기가

38) 강영오(2002) “이순신 전략의 현대적 분석” 『충무공 이순신 논문집(해전분야)』, (해군교육사령부 충무공수련원), pp.3 ~ 5.

아니므로 해전을 하는 것은 조선에 불리하며, 조선이 승리할 수 있는 전법은 육군의 기전이라는 것이었다. 왜구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군사전략은 육군이 육지에서 편안히 기다리면서 왜구가 침략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며, 왜구가 올 때마다 무리하게 해상에 나가 해전을 하게 되면 해전의 장기를 갖고 있는 왜구에게 패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해전을 피하고 왜구가 상륙하기를 기다렸다가 해상에서 지친 왜구를 조선 육군이 기전으로 제압하는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이전의 조선의 해군전략은 육군의 방왜육전론에 종속되어 진관체제(鎭管體制)에 따라 전 해안에 해군력을 분산 배치하였으며 전형적인 대륙적 해군전략인 연안방어(Coastal defense)를 실시하였다.

조선은 왜구의 노략질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진관체제에 따라 전 해안을 9개의 수사(水使) 책임구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금 12개의 첨사(僉使) 책임구역과 55개의 만호(萬戶) 책임구역으로 세분화하여 언제, 어디서 왜구가 침입해 와도 이를 대처한다는 연안방어 중심의 해양거부 전략을 제도적으로 확립하였다. 그러므로 조선은 일본보다 훨씬 우수한 전투함이었던 판옥선(板屋船) 100척을 보유하고도 모두가 과도히 분산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대규모 침공을 저지하지 못하고 임진왜란의 수모를 겪은 것이다. 조선 해군은 근본적으로 육군 전략에 종속될 수 밖에 없었으며, 대규모 해전보다는 연안방어에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인진왜란을 막지 못한 것을 당연히 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고려 말 정지(鄭地)의 해군 전략 사례를 보면 분명히 조선 해군의 전략은 잘못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지는 전라도 안무사(按撫使)로 부임하여 약 50척으로 구성되는 기동전투함대를 운용하였으며 각지에 침입한 왜구를 소탕하였다. 왜적이 120척으로 관음포(觀音浦)에 침입했으나 정지가 전투함대를 지휘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진관체제에 따른 조선의 해양거부전략은 대규모 침공에 대비한 것이 아니고 소규모의 산발적인 왜구의 노략질에 대비한 연안방어전략이었다. 따라서 10척 이하의 왜구가 침입해 오면 만호가 조치하며, 25척 이하의 경우는 첨사가 만호들을 지휘하여 대응하고, 30척 이하의 경우에만 수사가 책임해역의 전해군력을 동원하여 대응하는 자전자수(自戰自守)의 개념이었다. 조선 조정은 왜구

의 노력질을 예방할 목적으로 진관체제에 따라 막강한 조선 해군력을 수사, 첨사 및 만호들에게 분산하여 대륙적 해군(Continental navy)의 연안방어에 치중함으로써 집중된 왜함대에 의하여 순식간에 경상도 해군이 전멸되고 조·일(朝·日) 해상교통로에 대한 제해권을 상실하였다. 만일에 조정이 영국의 해양적 해군 전략과 같이 모든 전선들을 부산에 집중시키고 대마도 근해를 감시하고 있었다면 상륙작전에 중점을 둔 왜함대는 분명히 격퇴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영국을 침공한 스페인의 무적함대와 조선을 침공한 왜함대는 재래식의 승선(Boarding)전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나 조·영(朝·英)해군은 새로운 함포와 화기전술에서 유리한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선 조정은 오히려 조선해군에게 해양적 해군전략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된다.

일본의 조선 침공이 전격적으로 성공하여 이미 수도 서울이 점령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조선 조정은 해군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³⁹⁾ 그러나 전라좌수사였던 이순신이 옥포해전에서부터 일본함대의 일부를 공격하고 한산해전과 부산포 해전을 통하여 대승을 기하자 조선 조정을 방해육전론에서 함대결전론으로 급격한 전략적 사고의 변화를 보였다고 본다.

평시에는 해군의 필요성과 능력을 무시하고 육전론을 주장하다가 전세가 되니까 열세함대가 된 조선해군에게 해전을 강요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4. 이순신 주요 해전의 작전적 군수 측면 평가

임란 시 일본해군의 임무와 해군전략적 측면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일본해군은 전쟁지속능력 유지를 위한 병력 및 물자 수송 등 군수지원이 주임무였다.

총괄적으로 평가할 때 이런 일본 해군의 임무에 기초하여 이순신의 해상에서의 승리를 통한 제해권 확보는 일본군에게는 보급선의 차단과 전쟁지속능력 유지 및 작전의 융통성 확보 차원에서 큰 제한이 되었으며 조선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승리로 종결할 수 있는 작전적 수준 이상의 성과가 되었던 것이라고 판단된다.

일본군에게 해상 보급선은 실제 작전선이었던 대마도에서 부산을 거쳐 육상

39) 이기식, 전제논문, pp.72 ~ 75

으로 연하는 선과 전쟁 초기부터 종료 시까지 일본군이 확보하려했던 곡창지대인 전라도로 향하는 육상·해상병행 작전선, 그리고 실제 일본군이 시도조차 하지 못했지만 충분히 선택 가능했을 선으로서 판단되는 남해 해상을 통하여 서해안을 거쳐 평안도 방향으로 연하는 작전선이다.

이순신의 해전 승리는 이러한 적의 작전선을 단절시켰으며 이는 다시말해 적의 작전적 군수 기능을 마비시킨 것이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임진년의 전쟁이 이순신 함대의 4차 해전인 부산포 해전 이후 강화기로 접어든 결정적인 이유의 하나로 이순신 함대의 제해권 확보 및 이로 인한 일본군의 작전적 군수 기능의 마비(병참선 차단)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본장에서는 이순신 주요 해전 중 한산해전, 부산포 해전, 명량해전의 결과가 작전적 군수차원의 시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의미를 밝히는데 중점을 둔다.

가. 한산도 해전

(1) 해전 개요

한산도 해전은 1592년 7월 8일 경상남도 통영군 한산도 앞바다에서 와키사키가 지휘하는 함선 82척의 일본 수군을 전라좌수사 이순신, 전라우수사 이억기, 경상우수사 원균이 지휘하는 72척의 조선수군이 펼친 해전이다.

개전초기 연전연패한 일본 수군은 6월 하순경 총 공세를 펼치려 가덕도와 거제도 부근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경상남도 남해안에서 왜군 함선들의 활동이 증가하자 전라좌수사 이순신과 이억기는 이들을 격멸시킬 계획을 세웠다. 7월 5일 이순신과 이억기는 여수 본영에서 작전회의를 갖고 다음날 경상도 해역으로 출동하였다. 이들은 노량에서 경상우수사 원균과 합류하였다. 이리하여 조선수군은 이순신의 전라좌수군 함선 40척, 이억기의 전라우수군 함선 25척, 원균의 전라우수군 소속 함선 7척, 도합 72척으로 연합함대를 편성하고 이순신이 이를 총지휘하게 되었다. 연합함대는 해안을 따라 동진하여 7일 저녁에 당포에 도착하였다. 함대가 당포 앞바다에 정박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곳 주민들로부터 왜선 70여척이 건내량에 정박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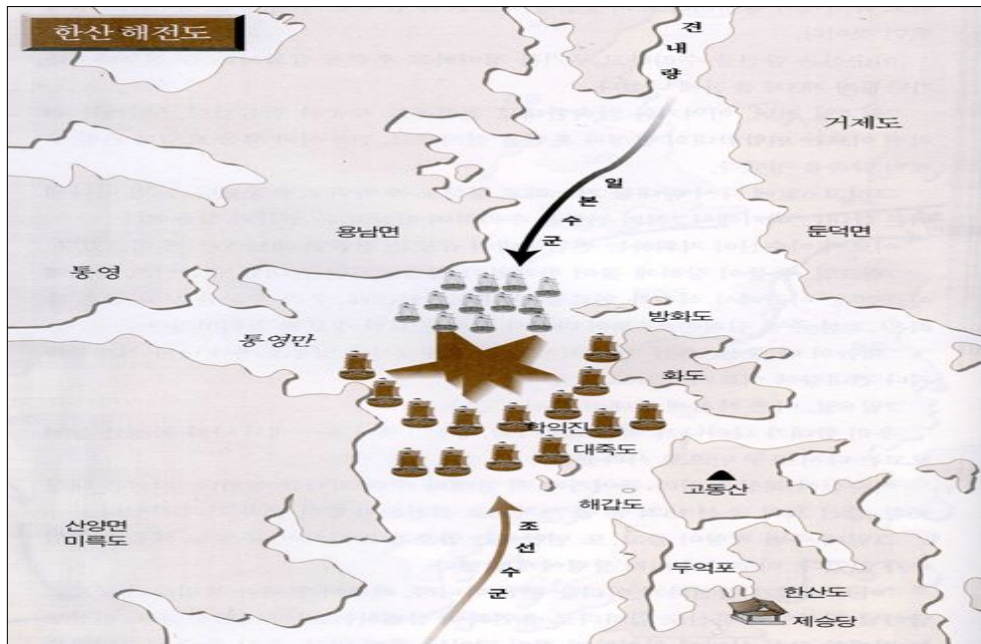
초전에서 연패한 일본수군은 도요토미의 엄명으로 구키, 가토오, 와키사키 등 수군장들이 웅천앞바다에서 합세하여 조선 수군에 총공세를 펼치기로 하였는데 그중 와키사키는 웅천에 도착하기 전인 7월 6일 함대를 이끌고 웅천

을 출발하여 7일 오후 2시경 견내량에 도착해 있던 것이다. 와키사키 함대는 대형 전함 36척, 중형 전함 34척, 소형 전함 12척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주민 제보의 사실을 확인한 조선수군은 8일 아침에 견내량으로 출동하였다. 견내량에 도착한 이순신은 견내량의 포구가 좁아 판옥선같은 대형 전함의 기동이 불리하고 만약 적이 수세에 몰리면 배를 버리고 육지로 도주할 것을 우려하여 한산도 앞바다로 적을 끌어내어 포위공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 적이 한산도에 상륙한다 하더라도 식량이 없기 때문에 자멸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도 계산하였다.

이순신은 판옥선 수척을 견내량 포구쪽으로 접근시켜 왜군을 자극하였다. 왜장 와키사키는 즉각 함대를 동원하여 공격을 가해왔다. 이에 조선수군 연합함대의 판옥선들은 총통을 쏘면서 저항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왜군 함대는 일제히 추격해왔다. 판옥선들이 후퇴하여 한산도 앞바다에 이르자 왜군 함대도 따라서 한산도 앞바다로 몰려나왔다. 이때 조선수군 연합함대는 학익진을 펼쳐 왜군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좌우에서 왜선을 포위한 연합함대는 총통을 쏘아 왜선을 격파하면서 포위망을 좁혀 들어갔다. 또한 거북선을 적진 속으로 돌입시켜 좌충우돌하여 적선을 파괴하였다. 왜선에 접근한 조선수군은 적의 배에 올라 백병전을 벌이고 적의 지휘함에는 불화살을 쏘아 소각시켰다.

이렇게 조선수군 연합함대의 학익진 전술은 완전한 성공이었다. 포위망 속에는 왜선 50여척이 차례로 격침되고, 와키사키의 부장 2명을 포함한 수백명의 왜군은 수장되었다. 부장 마나베는 부하 400여명과 함께 배를 버리고 한산도에 올라 숨었다가 자살했으며 적장 와키사키는 구사일생으로 포위망을 탈출하여 김해성으로 들어갔다. 조선의 연합함대는 이 해전에서 왜군의 전함 66척을 격침시켰으며 왜수군 100여명의 목을 베는 전과를 올리고 그날 밤을 견내량에서 보냈다.⁴⁰⁾

40) 이기식, 전계논문, pp.84 ~ 86.



<그림 1> 한산 해전도

(2) 작전적 군수 관점에서 평가

한산도 해전은 학익진 전법 등 해전사적인 중요한 의미와 더불어 임진왜란 전체국면에 작전적 군수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유성룡은 『징비록』에서 이 해전의 의의에 대해 “이순신이 한산대첩을 거둬 일본의 수륙병진 전략을 분쇄하였고, 더 나아가 전라도와 충청도가 보존하여 이를 바탕으로 조선이 중흥을 이룰 수 있었다.”고 높이 평가했던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⁴¹⁾ 한편 도쿠토미 이이치로는 한산도 해전 참패의 원인을 일본 선박의 취약, 수군장수간의 갈등,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수군 경시 등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그는 한산도 해전의 패전으로 인해 일본군이 제해권을 상실하였고, 그 결과 일본군이 육전에서도 허송세월만 보내는 손해를 보았으며 평양까지 진격한 고니시 유키나가는 진퇴양란에 빠지게 되었다고 논평하였다.⁴²⁾ 한산해전의 의의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이미 일본의 서해 해상교통로를 차단하여 왜함대가 지상군과 보급품을 싣고 서해안으로 진출하여 평양으로 진군한 왜 육군을 지원할 수 없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같은 생각은 앞에서 언급한 유성룡의

41) 유성룡 『징비록』 권1

42) 이민웅, 전제서, p.101.

정비록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강영오는 「이순신 전략의 현대적 분석」이라는 논문에서 왜군의 침공계획이 부산을 중심으로 되어있었으며 서해로 병행할 계획은 없었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 논리의 요지는 왜해군이 한산해전을 실시한 것은 그 동기가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분노에 따라 이순신 함대를 격멸하려 했던 것이 분명하며 왜군이 서해로 이동하기 위한 사전 준비는 아니였다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리고 왜 함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산도 서해를 이용하여 지상군과 보급품을 운반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군은 초기 침공계획상 부산을 기점으로 3개 주공방향을 설정했으며 왜 해군은 지상군의 보급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대마도와 부산을 잇는 해상교통로만을 이용하였다는 점을 고려 왜의 침공계획에 서해 해상교통로를 이용할 계획은 없었다는 것이다.⁴³⁾ 그러나 이는 전쟁의 진행에 따른 계획의 변경 가능성을 고려치 않은 평가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당시 계획이 조선을 거쳐 명나라로 진격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조기에 조선에 대한 점령과 한반도에서의 전쟁 목적을 달성했을 때 계속적으로 부산을 통한 지상으로의 병참선을 유지, 신장된 병참선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을 가능성은 적기 때문이다. 신장된 작전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상 병참선 보다 해상 병참선이 당시 여건을 고려할 때 훨씬 신속하고 손쉬운 병참선 유지방법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군이 부산에서 평양까지 긴 보급로를 유지하는데 있어 중대한 제한사항으로 작용했던 것이 바로 조선 의병의 활동이었다. 당시 의병은 일본군의 후방 교란 및 보급로 차단을 주요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⁴⁴⁾

따라서 일본으로 하여금 전쟁의 진행에 따라 병참선을 서해해상으로 전환할 개연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불어 이후 명량해전의 승리에 대해 조선 조정이 명나라에 보낸 자문에서 명량해전 승리의 의의를 “칠천량 패전 이후 남해가 우려되었으나 소방의 수군이 승리를 거둬 적봉이 좌절되었으니 이로 인해 일본군선이 서해에는 진입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⁴⁵⁾

43) 강영오, 전제논문, pp.15 ~ 16.

44) 이민웅, 전제서, p.121.

45) 상계서, p.234.

따라서 한산해전은 작전적 군수 측면에서 조선함대의 해상통제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전라도와 충청도 확보하여 조선의 전쟁지속 능력을 유지하는 전과를 올리는 동시에 서해 교통로를 이용하여 서진할 수 있는 일본 수군의 중요한 방책을 저지함으로써 일본군의 수륙병진작전과 서해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해상보급선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추가적으로 일본군의 부산과 대마도간의 해상 보급로를 위협함으로써 일본의 전쟁지속능력에 대한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의의를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부산포 해전

(1) 해전 개요

부산포 해전은 1592년 9월 1일 부산포에서 왜군수장 기이가 이끄는 왜수군 430여척의 함대와 이순신의 함대 166척이 전투를 한 해전이다. 8월 하순에 왜군은 진주성을 공격하기 위하여 병력을 증강시키고 있었다. 왜군은 한성에 주둔하고 있던 가토오, 기무라 등의 병력 수만명을 김해로 집결시켜 약탈한 물자를 낙동강 수로를 이용하여 부산으로 운반하였다. 경상 감사 김수는 이러한 왜군의 동향에 대하여 왜군이 본국으로 철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순신으로 하여금 왜군의 해상 퇴로를 차단하도록 요청하였다. 전라좌수사 이순신은 전라우수사 이억기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왜군의 해상퇴로를 차단하기로 하고 8월 24일 오후에 여수항을 출항하였다. 전라 좌·우수군 함대는 25일에 사량 앞바다에서 경상우수사 원군과 합류하여 연합함대를 편성하였다. 연합함대는 판옥선 72척, 협선 92척, 도합 166척으로 개전 이후 최대 규모가 되었다.

연합함대는 27일 웅천에 도착하여 적정을 수집한 결과 고성, 진해, 창원 등지에 주둔해 있던 왜군이 8월 24일 ~25일 밤중에 모두 철수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연합함대는 이를 왜군이 본국으로 철수하려는 것으로 확신하고 낙동강 하구를 봉쇄하였다. 그러나 이들 왜군은 진주성 공격을 위해 김해로 집결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연합함대는 낙동강 하구에서 왜선을 기다렸으나 별상황이 일어나지 않자 계획을 수정하였다. 연합함대는 왜군이 이미 부산으로 철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부산포의 왜군 본거지를 타격할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때 부산에는 성주에서 남하한 육군 1만여 명과 수군 8천여 명이 주둔하고 있었으며 부산포에는 왜군함선 430여척이 정박하고 있었다.

9월 1일 새벽, 가덕도를 출발한 166척의 연합함대는 다대포 앞바다에서 왜군 대형 전함 5척을 격파하고 다대포 포구에서 8척, 서평포 앞바다에서 9척, 절영도에서 2척 등 조우한 적선들을 차례로 격침시켰다. 연합함대는 절영부근에서 정지하고 적정을 파악하였다. 부산포 포구에 적선 400여척이 계류 중에 있으며 해안선을 따라 왜선 다수 병력이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연합함대는 적선이 전투태세를 갖추기 전에 기습적인 타격을 가하기로 하였다.

연합함대는 거북선을 선두로 장사진을 형성하여 종대 대형으로 돌진하였다. 미처 전투준비를 갖추지 못한 왜수군은 배를 버리고 육지로 올라가 육군과 함께 해안진지에서 조총을 쏘면서 저항하였다. 조선수군은 활로 해안의 적병을 견제하면서 총통, 장군전, 장편전, 철환 등을 쏘아 왜함선들을 격파하였다.

이 전투에서 조선수군은 전사 6명, 부상 25명의 인명손실을 입었으나 왜군함선 100여척을 격파하고 수백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후 왜군의 해상활동은 크게 위축되어 대마도-부산 간의 보급로 확보에 전전긍긍하게 하였다.



<그림 2> 부산포 해전도

(2) 작전적 군수 관점에서 평가

부산포 해전은 이전의 해전들과 달리 일본 수군의 근거지인 부산포를 직접 공격했으며 참전 규모, 전과가 가장 컸던 해전으로 부산포 해전 이후 일본 수군은 해안에 축성한 뒤 육상에서만 조선 수군을 상대하려는 해전 회피 전법이 더욱 고착되게 하였다. 더불어 풍신수길은 조선수군과 해전을 회피하라는 교지를 내리게 되며 직접 바다를 건너와 전쟁을 지휘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임진왜란 시 부산의 가치는 두말할 나위없이 중요했다. 작전적 군수 측면에서 부산포 해전이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부산의 전략적 가치는 조선침략의 교두보이자 군수지기, 일본 수군의 근거지로서 왜군의 병력증강과 군수지원을 위한 수송선단이 출입하는 거점이었으며 북상한 왜군의 보급기지였다. 부산포 해전 이후 일본군의 해상 통제권은 상실되었으며 일본의 수륙병진 전략이 분쇄된 것은 물론 해상 보급로는 지대한 위협을 받게 되었다. 즉 육상에서는 진주성에서 대패, 해상에서는 부산포해전에서의 패배가 일본군으로 하여금 전쟁을 지속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했으며 이는 강화교섭기로 접어들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게 하였다.

다. 명량해전

(1) 해전 개요

명량해전은 1597년 9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명량 수로에서 일본군 수장 토도가 지휘하는 일본 함선 330척과 12척의 이순신 함대가 싸운 해전으로 칠천량 해전으로 와해된 조선수군의 이순신의 백의종군으로 드라마틱한 승리를 거두는 해전이다. 원균이 지휘하던 조선수군이 칠천량 해전에서 와해되자 조정은 도원수 권을 휘하에서 백의종군하던 이순신을 7월 22일에 다시 수군통제사에 복직시켰다. 이순신이 남긴 기록에는 당시의 전선 수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보통 통제사의 장계를 바탕으로 명나라에 이자하는 것이 상례였던 만큼 실록에 나오는 13척이 정확한 치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숫자는 배설이 지휘하던 8척의 전선에 작처의 장수들이 합류하면서 더해진 것이었는데 이에 앞서 8월 중순 조정에 보고할 때까지는 12척이었고 그 후 1척이 증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⁴⁶⁾ 토도, 가토오, 와키사키 등이 지휘하는 왜수군은 함선 330여척으로 9월 7일 해남반도 어란포에 진출해 있었다. 이들은 진도와 화원반도 사이의 명량 수로를 통과하여 서해안으로 진출, 북상하는 육군을 호응하기로 되어 있었다. 명량수로의 폭이 좁고 조수간만시 유속이 빠른 곳이다.

왜수군이 어란포에 이르렀다는 보고를 받은 이순신은 9월 15일 진영을 명량 서쪽의 전라우수영으로 옮기고 간만 시에 조류가 역류하는 현상을 고려하여 이곳에서 왜수군을 격파할 계획을 세웠다. 9월 16일 왜 함선 130여척이 명량수로로 진입하자 이순신은 함선 12척을 이끌고 명량 수로 서쪽 출구를 봉쇄하였다. 밀물을 타고 수로 동쪽 입구로 진입한 왜군 함대가 일렬종대로 수로를 통과하여 선두가 서쪽 출구에 도달하였을 무렵, 밀물이 썰물로 바뀌어 조류가 역류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이순신은 피란선 1백여 척을 배후에 전개시켜 주력함대가 있는 것으로 위장한 가운데 12척의 함선으로 왜군함대의 선두를 공격하였다. 지자포와 현자포 등으로 왜군 함선을 격파하면서 화살로 선상의 적병을 사살하였다.

왜군함대는 역류하기 시작한 조류의 급류에 휩쓸려 그들 함선끼리 부딪히

46) 이민웅, 전개서, p.224.

고 조선군 함선으로부터 화포공격을 받아 혼란에 빠졌다. 이 와중에서 조선군 함선은 31척의 왜군 함선을 격침시키고 주장 토도에게 중상을 입혔다. 뒤따르던 왜군 함대는 뱃머리를 돌려 패주하였다. 그야말로 이순신의 지략이 아니고서는 해낼 수 없는 승리를 거둔 것이다.



<그림 3> 명량 해전도

(2) 작전적 군수 관점에서 평가

일본군은 재침 시 철저한 전략을 세워 침공하였을 것이다. 특히 조선수군이 패배한 칠천량 해전 후 육상에서는 조·명 연합군이 전라도의 관문인 남원성 수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나 일본군은 다시금 전라도를 침공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워 그들의 최초 목표인 남원을 생취하고 전주 및 황석산을 공격하였으며 일본 수군은 육군과 함께 수륙병진을 계속하여 전라도 연안을 점진적으로 침범하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이 일본군의 침공로 설정은 전쟁수행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할 병참, 즉 군량을 먼저 확보한다는 원칙에 먼저 전라도를 선점한 것으로 매우 건전한 전략이었다. 또한 일본군은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을 거의 괴멸시킴으로서 제해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되

있던 것이며 조선 수군으로서는 임진년 이래 처음으로 제해권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다. 조선수군으로서는 수군을 수습하여 일본수군의 서침을 저지하지 않는 한 전쟁의 승리란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일본군은 칠천량 해전이후 확보한 제해권을 바탕으로 다시금 임진년에 획책했던 군량 확보를 위하여 전라도 지방 진출을 위한 수륙병진공격을 감행, 이를 저지한 해전으로서 명량해전의 승리는 전쟁승리에 직결되는 전략적이며 작전적 차원의 승리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제 4 장 결 론

이순신의 수군 건설과 복원, 일본군의 오판과 실책, 그리고 이순신이 수행한 주요 해전 승리가 갖는 의의를 중심으로 임진왜란 승리 요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에게 낯선 ‘작전적 군수’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설명하였다. 따라서 ‘작전적 군수’라는 개념의 명확한 규정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본고의 최우선 과제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작전적 군수에 대한 현대적 관점의 정의를 알아보고, 임진왜란 당시의 일본과 조선의 입장에서 작전적 군수가 전쟁에서 갖는 의미를 정립하고자 했다. 즉 작전적 군수는 전략적 군수와 전술적 군수를 연결시키는 것으로서 전구 내에서 수행되는 전역과 대규모 작전간 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요구되는 군수 지원 및 기타 지원활동으로 교범 상 제시된 정의로서 이해했다. 즉 작전적 수준의 군수는 전쟁의 승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전쟁에 있어 작전적 군수는 전쟁 승패와 직·간접적으로 연계성을 이루며 아군의 작전적 군수 지원을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적의 작전적 군수 지원을 차단하는 두가지 측면 모두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임진왜란 시 조선의 승리요인으로 일본의 작전적 군수 차원의 오판, 이순신의 작전적 군수 차원의 수군 건설과 복원, 이순신 해전이 일본의 병참선을 차단하고 동시에 조선의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을 보호하여 일본의 원활한 전쟁 수행을 위한 작전적 군수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본고의 의미는 지금까지 해군전략 및 전술 측면과 이순신 리더십에 집중되어 있던 이순신과 임진왜란의 연구 범위를 넓혔다는 데 있다. 다시말해 이순신의 수군 건설과 복원, 해전의 승리가 새로운 개념인 「작전적 군수」라는 분석 개념의 틀 내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더해진 것이다. 또한 아직도 우리 군에 다소 경시되고 있는 ‘군수’라는 군의 분야가 과거 및 현재, 미래에도 전쟁에 있어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다.

끝으로 본고가 임진왜란과 이순신이라는 400년여 전의 전쟁과 인물을 바탕

으로 ‘작전적 수준’, ‘작전적 군수’ 라는 현대적인 용병술 개념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 치도 적용상 어긋남이 없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순신은 현대적 관점의 작전적 지휘관으로서 그 임무와 소임을 다하였기 때문이다. 칠천량 해전의 패배직후 이순신은 단 12척의 배만을 보유하게 된다. 이 시기에 조정에서는 단 몇 척의 전선만으로는 일본 수군을 맞아 싸울 수 없으니 이순신에게 수군을 해산하고 육지로 올라와 싸우라는 지시를 내린다. 그러나 이순신은 단지 12척의 배라도 바다에 전쟁승리의 길이 있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장계를 올린다.

저 임진년으로부터 5, 6년 동안 적들이 감히 전라도와 충청도를 바로 쳐들어 오지 못한 것은 수군이 그 길목을 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맞서 싸운다면 오히려 해볼 만합니다. 지금 만일 수군을 전부 없애 버린다면 이는 곧 적들이 크게 좋아할 일로서 호남을 거쳐 한강까지 곧바로 쳐들어갈 터인데 신이 걱정하는 바가 이것이 옅니다. 전선의 수는 비록 적지만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은 우리를 업신여기진 못할 것이 옅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육군으로 편입하라는 조정의 지시는 정부의 전략지시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순신은 위 장계를 통하여 조정의 전략지시에 대한 군사적 전문성과 사명감을 겸비한 작전적 지휘관으로서 바로잡아 건의할 수 있는 소신이 있었던 작전적 수준의 지휘관의 전형이었다. 이는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모습일 것이다. 또한 이순신이 지휘한 각각의 해전이 전투라면 이 전투들은 결국 작전적, 전략적 승리가 되었다는 점으로도 이순신을 우리 역사의 가장 작전적 수준의 작전적 군수를 잘 이해한 지휘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처음 연구를 시작하면서는 더욱 구체적인 이순신의 군수조치를 확인하고 싶었다. 그러나 자료의 부족, 연구의 부족으로 생각한 만큼 깊은 연구결과를 얻어 내지 못했다. 따라서 차후 연구의 방향(본고의 한계)은 임진왜란이라는 위기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이순신 군수조치를 밝히는데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위기 상황에 판옥선 등 군선 제작에 필요한 채원과 자원의 확보, 총통 등 무기류 제작에 필요한 채원과 자원의 조달, 몇일씩 투입되는 해상전투상황

에서의 의식주 해결방안, 조정과의 관계에서 있어서 삼군수군통제사로서 가지고 있던 권한(군정권)과 책임의 범위 등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영오(2002) “이순신 전략의 현대적 분석”, 『충무공 이순신논문집(해전분야)』, (해군교육사령부 충무공수련원).
- 김주식외(2000) 『조선시대 수군관련 사료집 III』, (해군사관학교).
- 교육사령부(2009) 『야전교범 4-0 군수 업무』.
- 송양섭(1999) “임진왜란기 국가의 둔전 설치와 경영” 『한국군사사 논문선집』, (서울 : 국방군사연구소).
- 이기식(2002) “충무공 이순신의 해양전략사상에 관한 연구”, 『충무공 이순신논문집(해전분야)』 (해군교육사령부 충무공수련원).
- 이민웅(2004) 임진왜란 해전사』, (서울 : 청어람미디어).
- 이장희(1999) 임진왜란사연구』, (서울 : 아세아문화사).
- 이순신, (1798) 『난중일기』
(1795) 『이충무공전서』
- 이순신(조성도 편)(2007) 『임진장초』, (서울 : 연경문화사).
- 유성룡(김홍식 편)(2003) 『징비록』, (서울 : 서해문집).
- 장학근(1989) 『조선시대 해양방위사』, (서울 : 창미사).
- 장한식(2009) 『이순신 수국 프로젝트』, (서울 : 행복한 나무).
- 정연우(2007) “작전적 수준의 전장기능”, 『군사평론』 386호, (대전 : 육군대학)
- 최영호(2008) “작전적 군수”, 『군사평론』 393호, (대전 : 육군대학).
- 합동교범(2009) 『4-0.합동 군수』, (서울 : 국방대학교 합동참모대학)

2. 국외문헌

Norman M. Wade, *The Operations Smartbook*, The Lightning Press,
2002



ABSTRACT

Analysis of the Victory of Imjin War from Operational Logistics Point of View

- Focusing on Sea Battles and Logistic Measures of General Yi Sun Sin -

Kim, Tae-Yeon

Major in Division of National Defence

Management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Yi Sun-Sin is one of the most venerated soldier in Korean history. Being a career officer myself, not only do I agree with the assessment that Yi saved his country through his victories in the battlefield, but wanted to make a military assessment of Yi's achievements in the battlefield which resulted in the motive of this thesis. I aim to assess Yi and Yi's naval battles with the conceptual frame work of "operational level" and "operational logistics" and further add to Yi's assessment and significance.

In conclusion, Yi is one of the best operational level commanders in Korean history. As one of the best operational level commanders, Yi faithfully executed the responsibilities of a modern day operational

commander. in addition, Yi fully understood the importance of operations execution at the operational level and the importance of logistics and was a commander who put these into practice.

In this thesis, I link together the historical facts and the significance of operational logistics in force generation and reconstitution of friendly and enemy forces and the results of naval warfare with an emphasis on maintenance of sea nd ground line of communications (LOCs). Specifically, I argue that the primary factor for winning the Imjin War was Yi's practice of operational logistics and analyze them in three parts.

First, Yi's navy construction and reconstitution from the perspective of operational logistics during peace negotiation period started when the battles of the year Imjin ended. Yi focused on damage reconstitution and construction of additional combat power. this process is evidenced once again after the battle of Chiljeonryang, when reconstitution of annihilated Chosun navy took place. Acommander preparing for war is nothing out of the oridnary, but considering Yi's situation, he was truly extraordinary. yi managed to take appropriate logistics measures without government support. This includes securing combatants, rations, building warships and other combat preparations.

Second Japan's misjudgement. Regarding operational logistics and war execution, Japan's miscalculation is the main cause of defeat. Japan's contempt for Chosun's navy led Japan to assume that they will be welcomed by Chosun's people. Japan's navy was a simple convoy whose main role was to transport material. Not being an active maritime combat force, the strength of Japanese navy was limited. This resulted continuous defeats against Yi's strong navy. These defeats disabled Japan's maritime LOCs including Daemado-Busan line, South-West line. Limitations imposed

on these LOCs prohibited Japan from entering Jeolla province, the breadbasket of Chosun. Also the unexpected guerilla resistance by the people of Chosun eventually threatened Japan's LOCs both ground and sea. In addition, Japan's lack of preparation for prolonged war combined with harsh winters of Chosun caused additional damage to Japan's combat capabilities. In short, Japan's defeat was the result of failed operational logistics.

Third, Yi's main maritime victories are victories of operational logistics. This paper evaluates operational logistics based on the cases of battle of Hansan Island, battle of Busan, and battle of Myeongryang. first of all, battle of Hansan Island was the turning point where Chosun navy acquired maritime superiority. This enabled Chosun to secure Jeolla and Chungcheong province and maintain war sustainability as well as preventing Japan's navy from seizing west sea maritime route and move west. The denial of this important course of action denied Japan's maritime LOC. The battle of Busan struck the heart of Japan's invasion as Busan served as a bridgehead of invasion as well as logistics center for Japan. After the battle of Busan, Japan's maritime control was gone, and Japan was unable to execute their strategy of advancing both at land sea simultaneously. The lack of maritime LOC forced Japan to the peace talks. Finally, operational logistics implications of the battle of Myeongryang. Japan was able to gain maritime superiority after the battle of Chiljeonryang. It was the first time Chosun had to give up maritime superiority since year Imjin. after the battle of Chiljeonryang, Japan started advancing both at land sea based on their newly gained maritime superiority. The battle of Myeongryang was a strategic and operational victory that stopped Japan which led to winning of the war.